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장세영

강원관광대학교 간호과

Effects of Self Esteem, Family Suppor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Se-Young Jang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Tourism College

<Abstract>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influence of self esteem, family suppor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djust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effect. **Methods:** Using cluster sampling, 318 high school freshmen from T city were extracted as survey subjects. Independent t-test, ANOVA, Duncan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religion, family income, single-parentedness, health status and school grad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suicidal ideation. Controlling the above variables, increase in self-esteem ($\beta = -.300$) and family support ($\beta = -.267$)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suicidal ideation but adaptation to school life did not. **Conclusions:**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measures for enhancement of self esteem and family support to be included in development of suicide prevention programs.

Key words: Adolescent, Self esteem, Family support, Adaptation to school life, Suicidal ideation

I. 서론

최근 들어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은 2011년 대구에서 9명의 학생이, 2013년 들어 3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2012-2013년 3월까지 대구의 자살 학생은 총 12명으로, 이 중 8명이 고등학생이고 그 중 5명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고등학생의 자살발생률이 이전과 비교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Yonhap News Agency, 2013). 그리고 2012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은 10대 사망원인 1순위로 자살을 생각해 본 청소년은 8.8%에 이르며(Cho, 2012), 2012년 한국보건 의료원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은 2008년

18.9%에서 2011년 1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Gang, 2013), Yi, Yi, & Jung (2011)이 질병관리본부에서 2007년도에 조사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남녀 중·고등학생의 자살시도 예측요인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자살생각을 했던 중·고등학생의 분포는 비슷하였지만 중학교에서는 3학년이, 고등학교는 1학년의 분포가 가장 높았다. 이 연구에서 자살을 생각한 학생의 분포는 학년 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자살을 시도한 학생의 분포는 남·여학생 간에 상이하여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점점 증가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서 24.3%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중학교 1학년에서 30.2%로 가장 높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고등학교 1학

Corresponding author : Se-Young Jang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Tourism College, 97, Daehak-gil, Taebaek-si, Gangwon-do
강원도 태백시 대학길 97 강원관광대학교

Tel: 010-4508-1259 Fax: 033-550-6374 E-mail: syjang30@naver.com

▪ 투고일: 2013.04.30

▪ 수정일: 2013.06.07

▪ 게재확정일: 2013.06.25

년은 25.6%였다.

청소년기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기대와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이며 주변의 기대가 자신의 발달 수준이나 능력보다 높을 때 실패와 사회적 불인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불인정이 자살을 유발한다고 하였다(Lee, 2005). 이러한 청소년의 자살은 사회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중보건 문제인 동시에 가족, 학교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전염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은 자살의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Gould, Greenberg, Velting, & Shaffer, 2003),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생각도 이후에 더 심각한 생각으로 발전되거나 바로 자살기도로 연결될 수 있다(Kwon, 2009).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개인체계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은 많은 연구에서 자살을 시도하였거나 자살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Tucker-Ladd, 199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결과에서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자아존중감인 것으로 나타났다(Seo, 2006). 청소년의 가족체계 요인으로서 가족지지는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결핍은 자살의 핵심요인인 자아거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ark, 2008). Yong (2011)의 연구에서도 가족지지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학교체계 요인으로는 학교생활적응을 들 수 있다. 만일 이 시기에 또래 집단이나 선생님과의 문제를 지니게 되면 자존심이 저하되고 비행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자살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하였고(Holinger & Offer, 1987), Im & Jung (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 학업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학업문제로 인해 자살생각이나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중의 상당수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Kim & Chun, 2000).

생태체계 관점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단일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에만 중점을 두거나(Yoon & Yoon, 1993; Park, 2006), 가족환경 요인(Lee, 2005; Choi, 1997) 및 학교요인(Lee, 1995) 등의 개인, 가족 및 학교체계 요인을 개별적으로 다루어 왔다. 이러한 개별적 접근은 자살생각을 하는 개인과 가족 및 학교환경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밝히지 못하여, 자살과 관련된 행위의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Yuk, 2003). 그리고 인간은 사회체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므로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가족 및 학교체계 환경의 영향만을 분리해서 접근하기 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를 통합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Hwang Bo, 2012).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이나 특정 사회구조 등의 단일요인에 의해 일어나기 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함께 가족, 학교 및 사회적 환경 요인을 포함한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으며(Jo, 2008),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은 서로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므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생태체계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Seo, 2006).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고등학교 남·여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체계의 주요체계로서 청소년의 개인체계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가족체계 요인으로 가족 지지 및 학교체계 요인으로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자살생각의 정도와 이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자아존중감, 가족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 자살생각

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횡단면 설계인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대상자의 표본은 집락추출법으로 T시에 소재한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 1개교와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1개교를 임의로 선택하여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지 배부 수는 여학생은 총 169부를 배부하여 그 중 159부를 회수하였고, 남학생은 총 181부를 배부하여 전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7부와 성비 차이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혼란 변수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임의로 선택한 5부를 제외한 159부를 사용하여, 남·여학생 총 318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목표 표본의 수는 회귀모형의 일반화를 위한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다중회귀분석에 사용 될 독립변수 개수가 일반적 특성 9개를 포함하여 총 12개가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독립변수 개수의 15-20배를 권장하고 있고 도구의 설문 문항을 고려하여 300명 정도를 목표로 하였다(Joseph et al., 1998).

3.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3년 1월 4일부터 1월 12일까지로 T시에 소재한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 1개교와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1개교를 연구자가 방문하여 1학년 전체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허락을 얻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설문지 배부 전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비밀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를 받고,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20~25분 정도였다.

4.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Park (2006)과 Seo (2006)가 사용한 척도를 Cho (2013)가 인용하여 사용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고등학교학생들이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자기만족 4문항, 자기비하 6문항, 자기주장 5문항

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정말 그렇다” 1점에서 “전혀 아니다” 5점으로 자기비하의 문항과 자기주장의 문항(4, 7, 8, 12)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자기주장의 문항(11)과 자기만족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점은 최저 5에서 최고 75점이다. Cho (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 가족지지

본 연구에서는 Kim (1998)이 사용한 척도를 Park (2011)이 수정 보완한 가족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지지 7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5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점은 최저 5점에서 최고 120점이다. Park (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3)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Kim (1993)이 개발하고, Kim (2000)이 수정 보완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교생활적응 7문항, 학교친구적응 8문항, 학교수업적응 8문항, 학교환경적응 9문항, 학교교사적응 9문항으로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점은 최저 5점에서 최고 205점이다. Kim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4)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는 Reynolds (1988)가 개발한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Shin (1992)이 번역한 것으로, Cho (2013)가 수정 보완한 청소년의 자살생각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죽고 싶은 이유 4문항, 죽고 싶은 생각 6문항, 죽음에 대한 관심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자살생각이 ‘전혀 없다’ 1점에서 ‘거의 매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에 대한 의증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총점은 최저 5점에서 최고 75점이다. Cho (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7이었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산출하였고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자살생각 정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검정 혹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였으며, 분산분석에서 유의한 경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고,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 및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의 3변수와 일반적 특성 중 자살생각에 유의하였던 인자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력(Enter)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입력방법에 의한 변수선택법을 사용함에 따른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를 확인한 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종교는 66.7%가 없었고, 가정경제수준은 ‘중’이 86.5%로 가장 많았다, 가족의 형태는 ‘양부모 가족’이 85.2%로 대부분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52.8%, ‘대졸 이상’이 37.8%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65.1%, ‘대졸 이상’이 24.2%를 차지하였다. 본인의 일주일 용돈은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62.3%가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 52.2%, ‘건강하다’ 44.0%로 대부분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중’이 63.8%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59	50.0
	Female	159	50.0
Religion	Yes	106	33.3
	No	212	66.7
Family income level	High	23	7.2
	Middle	275	86.5
	Low	20	6.3
Single-parentedness	Parents	271	85.2
	Single-parent	47	14.8
Education(Father)	< High school	30	9.5
	High school	168	52.7
	≥ University	120	37.8
Education(Mother)	< High school	34	10.7
	High school	207	65.1
	≥ University	77	24.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llowance	< 10,000 won	82	25.8
	10,000 - 50,000 won	198	62.3
	≥ 50,000 won	38	12.0
Health status	Very good	166	52.2
	Good	140	44.0
	Poor	12	3.8
School grades	High	30	9.4
	Medium	203	63.8
	Low	85	26.7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자살생각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51.59점(SD=7.75), 가

족지지 정도는 평균 87.83점(SD=17.55),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평균 113.67점(SD=20.65), 자살생각 정도는 평균 23.29점(SD=11.28)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self esteem, family support, adaptation to school life, suicidal ideation of participants. (n=318)

Variables	Mean±SD	Min	Max
Self esteem	51.59 ± 7.75	28	73
Family support	87.83 ± 17.55	27	120
Adaptation to school life	113.67 ± 20.65	52	195
Suicidal ideation	23.29 ± 11.28	15	75

3.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가족지지와 자살생각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가정경제수준, 가족형태, 건강상태, 학교성적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하’보다는 ‘상’과 ‘중’이,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한부모 가족’보다는 ‘양부모 가족’이, 건강상태는 ‘보통’과 ‘약하다’보다는 ‘매우 건강하다’가, 학교성적은 ‘하’보다는 ‘상’과 ‘중’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지지는 성별, 가정경제수준, 가족형태, 아버지의 학력,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경제수준은 ‘상’과 ‘중’이 ‘하’보다, 가족형태는 ‘양부모 가족’

이 ‘한부모 가족’보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상’, ‘고졸’, ‘중졸이하’ 순으로, 건강상태는 ‘보통’과 ‘약하다’보다는 ‘매우 건강하다’가 가족지지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가족형태, 건강상태, 학교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한부모 가족’보다는 ‘양부모 가족’이, 건강상태는 ‘약하다’보다는 ‘매우 건강’과 ‘보통’이, 학교성적은 ‘상’, ‘중’, ‘하’순으로 학교생활적응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은 종교, 가정경제수준, 가족형태, 건강상태, 학교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종교는 ‘무’보다는 ‘유’가, 가정경제수준은 ‘상’과 ‘중’보다

는 ‘하’가, 가족형태는 ‘양부모 가족’보다는 ‘한부모 가족’ 이, 건강상태는 ‘보통’과 ‘매우 건강하다’보다는 ‘약하다’ 가, 학교성적은 ‘상’과 ‘중’보다는 ‘하’가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Level of self esteem, family support, adaptation to school life,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 esteem		Family support		Adaptation to school life		Suicidal ideation	
		Mean±SD	F/t (p) [Duncan]	Mean±SD	F/t (p) [Duncan]	Mean±SD	F/t (p) [Duncan]	Mean±SD	F/t (p) [Duncan]
Gender	Male	51.0±7.41	-1.28 (.201)	84.3±15.01	-3.67 (<.001)	113.5±20.66	-0.19 (.850)	23.6±11.74	0.46 (.645)
	Female	52.2±8.06		91.4±19.17		113.9±20.71		23.0±10.82	
Religion	Yes	51.1±8.42	-0.74 (.462)	87.7±18.87	-0.08 (.937)	113.7±20.65	0.03 (.974)	25.2±12.50	2.18 (.030)
	No	51.8±7.41		87.9±16.90		113.6±20.71		22.3±10.52	
Family income level	1: High	52.0±9.70	5.94 (.003) [1,2>3]	94.6±20.08	6.39 (.002) [1,2>3]	114.5±22.78	1.79 (.169)	23.7±10.41	7.27 (.001) [3>1,2]
	2: Middle	52.0±7.38		88.1±16.66		114.2±20.49		22.6±10.55	
	3: Low	45.9±8.40		76.2±21.68		105.3±19.48		32.4±17.29	
Single-parentedness	Parents	52.1±7.56	2.82 (.005)	89.1±17.33	3.09 (.002)	114.9±20.48	2.48 (.014)	22.4±10.46	-3.25 (.001)
	Single-parent	48.7±8.26		80.6±17.25		106.8±20.51		28.1±14.34	
Education (Father)	1: < High school	49.9±8.56	1.29 (.277)	83.2±21.50	4.07 (.018) (3,2>2,1)	113.9±21.60	0.53 (.590)	22.3±10.71	0.66 (.516)
	2: High school	51.4±7.73		86.2±17.23		112.6±20.32		24.0±11.95	
	3: ≥ University	52.3±7.56		91.2±16.47		115.1±20.96		22.6±10.44	
Education (Mother)	< High school	50.6±7.32	0.40 (.674)	83.2±20.90	2.72 (.067)	112.5±19.21	0.28 (.754)	22.5±10.26	0.36 (.696)
	High school	51.6±7.79		87.3±17.13		113.3±21.11		23.7±12.00	
	≥ University	52.0±7.88		91.2±16.70		115.2±20.20		22.6±9.67	
Allowance	< 10,000 won	50.5±8.32	1.08 (.340)	87.5±18.65	2.96 (.053)	112.1±24.05	0.34 (.711)	22.8±10.88	1.91 (.150)
	10,000-50,000 won	52.0±7.00		89.2±15.91		114.3±18.91		22.9±10.54	
	≥ 50,000 won	51.9±9.95		81.7±21.95		113.8±21.85		26.6±15.04	
Health status	1: Very good	53.8±7.25	16.03 (<.001) [1>2,3]	90.5±16.98	4.33 (.014) [1>2,3]	116.5±20.49	3.63 (.028) [1,2>2,3]	21.0±9.56	8.54 (<.001) [1>2,3]
	2: Good	49.2±7.04		84.7±17.03		111.1±18.49		25.3±11.84	
	3: Poor	48.8±12.50		87.5±25.61		105.5±37.36		30.7±18.28	
School grades	1: High	55.2±8.62	17.04 (<.001) [1,2>3]	92.7±17.70	2.27 (.105)	126.0±30.98	11.07 (<.001) [1>2>3]	21.6±9.39	3.16 (.044) [3>1,2]
	2: Medium	52.7±6.84		88.3±16.05		114.8±18.06		22.4±10.39	
	3: Low	47.8±8.15		85.1±20.45		106.7±19.70		25.9±13.44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

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5). 자아존중감(r=-.448) 과 가족지지(r=-.416)는 다소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학 교생활적응(r=-.136)은 유의한 역상관 관계를 보였지만 관

련성 정도는 낮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지지는 학교생활적응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318)

Variables	Self esteem r(p)	Family support r(p)	Adaptation to school life r(p)	Suicidal ideation r(p)
Self esteem	1			
Family support	.494(<.001)	1		
Adaptation to school life	.373(<.001)	.325(<.001)	1	
Suicidal ideation	-.448(<.001)	-.416(<.001)	-.136(<.05)	1

5.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종교, 가정경제수준, 가족형태, 건강상태와 학교성적을 통제한 후 자아존중감, 가족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력방법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간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0.706-0.835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 범위는 1.018-7.561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배제 되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은 1.928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11.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회귀식의 설명력은 29.8%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통제한 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자아존중감이 1점 증가하면 자살생각이 0.436점 유의하게 낮아지며(β=-.300, p<.001), 가족지지는 1점 증가할 때 자살생각은 0.172(β=-.267, p<.001)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5>.

<Table 5> Influential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n=318)

Variables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β	t	p-value
Constant	65.114	5.081	.000	12.82	<.001
Religion (Yes vs No)	2.484	1.154	.104	2.15	.032
Family income level (Middle vs Low)	-4.303	2.376	-.131	-1.81	.071
Family income level (High vs Low)	-2.005	3.086	-.046	-0.65	.516
Single-parentedness (Parents vs Single-parent)	-2.027	1.595	-.064	-1.27	.205
Health status (Good vs Poor)	-4.823	2.964	-.213	-1.63	.105
Health status (Very good vs Poor)	-6.191	2.969	-.275	-2.09	.038

Variables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β	t	p-value
School grades (Medium vs High)	0.340	1.340	.015	0.25	.800
School grades (Low vs High)	0.777	2.185	.020	0.36	.722
Self esteem	-0.436	0.089	-.300	-4.90	<.001
Family support	-0.172	0.037	-.267	-4.68	<.001
Adaptation to school life	0.049	0.029	.090	1.68	.093
R ² , F(p)	0.298, 11.81(<.0001)				

IV. 논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남·녀 동수를 표집하였는데 이는 Yi, Yi와 Jung (2011)의 연구를 기초로 남·여 성비에 따라 자살생각률이 상이하여 성비 차이로 인한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고, Yi (2003)의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1학년 54.58점, 2학년 51.17점과 3학년 53.99점으로 조사되어 자살생각률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1학년만을 표집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환경 상 1학년을 선정하여 조사 하는 것이 조사의 용이성 때문에 측정오차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체 청소년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종교는 66.7%가 없었고, 가정경제수준은 ‘중’이 86.5%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52.8%, ‘대졸 이상’이 37.8%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65.1%, ‘대졸 이상’이 24.2%를 차지하였으며, 학교 성적은 ‘중’이 63.8%로 가장 많았다. 이는 D시와 K도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Yang (2012)의 연구에서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56.4%, 여학생이 43.6%이었고, 종교는 ‘무교’가 58.1%, 생활수준은 ‘보통’이 68%, 학업성적은 ‘중상’ 22.5%, ‘중’ 28.5%, ‘중하’ 29.5%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3.3%,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4.2%로 나타나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중졸이하가 극소수인 것을 감안하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51.59(평균평점 3.5)점으로 ‘보통이다’의 45(평균평점 3)점보다 높게 나타나 중간이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Yong (2011)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평균 3.5점으로 중간점수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 (2009)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1과 5사이의 보통 정도로 나타난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가정경제수준, 가족형태, 건강상태, 학교성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교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실시나 교육 시 개인적 특성이 편부 혹은 편모인 경우, 가정생활수준은 낮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와 학교성적이 낮은 경우에 특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자아존중감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Yong (2011)의 연구에서 가족지지는 평균 3.49점, Paik (2013)의 연구에서는 18.52(평균평점 3.7)점으로 모두 중간점수 3.0점 보다 약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평균 87.84(평균평점 3.7)점으로 나타나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가족지지의 차이는 성별, 가정경제수준, 가족형태, 아버지의 학력과 건강상태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지지가 취약한 학생들에게는 가족지지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관한 교육 및 가족상담 등의 실시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을 받는 다 하더라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가정으로부터의 충분치 못한 가족지지를 대신할 만한 요소를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봉사 단체 등에서 발굴하여 이들이 자신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평균 113.67(평균평점 2.8)점으로 ‘그저 그렇다’의 123.00(평균평점 3.0)점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Hong (2003)의 연구에서도 평균 2.91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과다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입시위주의 학교생활에 상당수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항이기에 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의 통념 등이 바뀌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무거운 숙제임이 재확인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은 가족형태, 건강상태, 학교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요소는 자아존중감이나 가족지지의 공통요소로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학교에 대한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자살생각 정도는 평균 23.29(평균평점 1.56)점으로 자살생각이 ‘전혀 없다’ 15(평균평점 1.0)점과 ‘1-2번 한다’ 30(평균 2.0)점의 중간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2003)의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살생각 54.58(평균평점 1.29점)점 보다 유사하지만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10여년의 시간흐름에 따라 자살생각률이 미미하지만 높아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종교, 가정경제수준, 가족형태, 건강상태, 학교성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 (2008)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이 사회통념과 달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서 자살생각이 더 높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종교를 가진 학생들 상당수는 건전하겠지만 일부 왜곡된 종교관을 가진 학생이 문제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기발견과 동시에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간의 상관관계는 상식대로 자살생각은 자아존중감, 가족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 가족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i (1997)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역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갖지 못하거나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면 자살행동에까지 이르게 되고 미래에 자살시도의 강한 예측인자가 낮은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으므로(Peter, Paul, & John, 199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Park (2008)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었고, Hong (2003)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Seo (2006)의 연구에서 학교생활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와 방향은 일치하였고,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학교 또래문제, 가족문제 및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자살의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고(Shin, 2012)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자아존중감, 가족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상관분석에서 유의하였던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가족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순분석에 유의하였던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는 있는 학생이 자살생각이 더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매우 좋은 학생이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논의하였듯이 종교를 가진 학생 중 관심대상 학생의 조기발견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였으며 학생들의 주관적인 건강 고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종교, 가정생활수준, 가족형태, 건강상태 및 학교성적이 중요하지만 이들

을 통제하고도 개인체계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가족체계 요인인 가족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순 상관분석에서 학교생활적응은 상관정도는 낮지만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요소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반적 특성 중에서 단순분석에서 유의하였던 인자 중에서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인자는 종교와 건강상태로 나타나 이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학교는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가족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시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T시에 소재한 일반계 남·여 고등학교 1개교씩을 집락추출하여 도출한 결론으로 그 한계는 있지만 그동안 단편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가 일반적 특성과 학교생활적응을 비롯하여 자기변인을 제외하고 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소중함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자아존중감 향상 방안의 마련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의 가족지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종교를 가진 학생은 건전할 것이라는 사회통념을 믿지 말고 왜곡된 종교관을 가진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심을 가지며,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동프로그램 및 교양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본 연구의 결과 도출을 위한 회귀모형 설명력은 30% 정도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던 변인들 외에 상당히 많은 변인들이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생각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인 발굴을 위한 노력이 촉구 된다.

참고문헌

- Cho, B. H. (2013). *A study on the risk factors for youth suicide on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nd the moderating eff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eonju University, Cheonju, Korea.
- Choi, T. S. (1997). *A causal analysis among psychological variables of family dynamics affecting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devia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Gang, J. H. (2013). *The Effects analysis of Adolescents' Stress on Suicidal Ide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Gould, M. S., Greenberg, T., Velting, D. M., & Shaffer, D.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4), 386-405.
- Holinger, P. C., & Offer, D. (1987). *Violent deaths in the unites states: An epidemiological study suicide, homicide and accidents*.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ong, J. A.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Hwang Bo, S. Y. (2012).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from an eco-system perspecti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Han, M. S. (2013, March). Countermeasure feel left out suicide of student...Counselling·Management 'Holes'. *mshan@yna.co.kr*, Yonhap News Agency.
- Im, S. B., & Jung, C. S. (2002). A comparison of stressors and coping behavior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suicidal ideation vs those who do no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2), 254-264.
- Jo, Y. S. (2008). *Adolesc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maladjustment that affect suicidal idea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Joseph F. H., Rolph E. A., Ronald L. T., & William C. B. (Eds.).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New Jersey, USA: Prentice Hall
- Kim, Y. R. (1993). An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affective

- characteristics and its antecedent variables on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Hongic University*, 9, 5-113.
- Kim, S. M. (1998).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ocial support and stress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daptability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W. & Chun, M. H. (2000). Study on the teenage suicid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9, 127-152.
- Kim, Y. R. (2000). An analysis on the validation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 (A) & school-related coping scale(B) and relation between(A) & (B).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Hongic University*, 17, 3-37.
- Kwon, E. H. (2009).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juvenile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 Kim, Y. K. (2009).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optimism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o, D. H. (2008). *The effects of the parent's raising attitude and the school adjustment on the adolescent suicide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Y. (2005). *The effects of stress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suicide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L. (1995). Relationship of high school seniors' coping strategies used to handle examination stress with levels of depression: In relationship of additional life event stress.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05, 89-98
- Park, B. K. (2006). *An exploratory study of Eco-system factors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ju, Korea.
- Paik, J. S. (2013).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on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volunteer work*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Y. Y. (2008). *Effects of da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 on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resbyte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Park, H. M. (2011). *The relationship of family support and adolesc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Peter, M. L. Paul, R. & John, R. S. (1994).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futue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2), 297-305.
- Reynold,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eo, H. S. (2006). *A study of influencing on adolescent's suicide thin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Shin, M. S. (1992). *An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S. C. (2012). *The factors that affect thinking about commitment of suicide by some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Tucker-Ladd, P. R. (1990). Alienated adolescents: How can schooles help. *The Clearing House*, 64(2), 112-114.
- Yi, K. C. (2003). *The Relatio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Maladaptive Behavior, Aggression, School-Anxiety, and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Korea.
- Yi, S., Yi, Y., & Jung, H. S. (2011). Factors on the suicidal attempt by gender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5), 652-662.
- Yong, M. J. (2011). *A study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relevant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Yoon, S. H. (2009). *Effects of self esteem on adolsc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Yoon, S. L., & Yoon, J. (1993).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uicidal ideators.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6(1) 107-120.
- Yuk, S. P. (2013). *The exploration of suicide related Variables and the development of treatment of treatment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Y. K. (2012). *Prediction model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